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한 암스님(1876~1951)의 법어와 계승 서간문 등을 묶은 문집<



다. '승가 5칙'은 교시적 성격을 띤 법어로 올바른 승가상을 제시한 제2의 백장법규로 일컬어진다. '선문담 21조'는 금강산 만일암 초대조실로 추대되어 결제정진중 대종의 질문에 응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암스님의 선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집간행위원장 해거스님(금강선원장)은 "문집을 편찬하고자 스님의 문장을 다방면으로 수습하고 또 현장을 찾아 영세한 단편을 모으고 살아계신 원로스님들의 증언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집간행위원회는 <만고심월> 출간기념회를 한암스님의 탄생일인 5월 11일

### 한암스님 문집 '만고심월' 4월말 발간

'승가 5칙' '선원규례' 등 첫공개

만고심월(萬古心月, 가제)이 4월말 민족사에서 발간된다. 한암스님 문집은 지난 90년 통도사 극락암 명정스님에 의해 <한암집>으로 출간됐었다. 이번 문집에는 그동안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승가 5칙' '선원규례' '죄절법문' '참선곡' '선문담 21조' 등을 실어 한암스님의 사상과 참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대할 수 있게 했

개회기도 했다. 한암스님은 1925년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한 이래 27년간 일체의 외부출입을 금하고 오직 수행정진과 후진양성에 전력하였으며, 통도사 해련, 유점사 동산스님 등의 대강백과 석교 수행정진과 후진양성에 대한 선지식을 길러냈다. 1936년에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 작년 불서신간 301종

## 전년비해 50%증가·경전류 24%차지 분야별 다양화·한글대장경간행 "눈길"

94년 불서출판 신간발행량은 301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3년 발행량 200여종에 비해 50%가량 늘어난 분량으로 불서출판의 분야별 다양화, 동국역경원의 본격적인 역경사업 추진, 민족사의 경전시리즈 등 기획출판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301종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종수를 나타낸 분야는 경전으로 72종을 펴내 전체발행량의 2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선어록·수상록(40종) 법어·어록(32종) 불교문학(30종) 선·명상·수행기(18종)의 순이었다. <포 참조> 불교학 연구분야와 관련된 불교사상·철학분야는 14종에 달했으며, 그나마도 번역불서가 8종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출판문화협회 남북자료와 불서출판 운주사에서 입고된 신간불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비매품은 서점을 통

한 대중유용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경전 가운데 금강경 법화경의 번역 및 해설서가 각각 6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율장본 아도 4종이나 되었다. 경전류 출판이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해 불서출판인들은 "불자들의 경전 선호도가 높아 상업적인 면에서 안정적이며, 경전 간행을 의미있게 여기는 출판인의 의식에서 연유한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불서를 펴낸 출판사는 모두 129개사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불서를 펴낸 곳은 동국역경원으로 19종을 기록했다. 이어서 불교시대사 15종, 민족사 12종, 우리출판사가 11종, 교림출판사 8종, 불교영상회보사 7종, 대원사 6종, 대원정사 불지사 발달출판사 5종의 순서를 보였다. 불서전문출판사 11곳이 전체 발행종수의 36.8%를 펴내 일반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불서

출판물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책의 경기는 평균 7,945원으로 일반출판물의 평균경가 8,185원(94 출판통계)보다 조금 낮았다. 평균경가가 1만원이 넘는 분야는 경전(11,027원)과 사진집(15,671원)이었다. 면수는 평균 313면으로 일반출판물의 267면보다 두꺼웠다.

번역불서는 35종(경전 및 국내저작중 한문일서는 제외)으로 전체종수에서 11.6%를 차지했다. 번역을 가운데는 일반불서가 12종으로 가장 많고 불교학 수입의 일본출판도를 보여주었다. 분야별로는 불교사상·철학, 불교사, 법어·어록 등에서 번역물이 현저히 많았다. 특히 라즈나쉬 번역이 6종이나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사찰·문화답사기가 15종이나 나와 문화답사에 대한 불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어린이불서도 14종이 발행됐다. 그러나 포교자료 및 불자들의 일상생활 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식 관련

#### ◇분야별 발행종수

분 류	종 수
경 전	72
석가불·입문·교리	18
전 기	13
선·명상 수행기	18
법어·어록	32
불교사상·철학	14
불교문학(성화 포함)	30
불 교 사	11
원시불교	3
어 린 이	14
선양록·수상록	40
사찰·문화답사기	15
불교의식	6
불교미술·사진	7
사건·전장·기타	8
계	301

불서는 이에 의면되거나 3종 발간에 머물렀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불서출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출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발행량은 29,564종이다. 종교분야는 1,941종으로 불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며 나머지는 개신교 천주교 등 기독교계 출판물이 차지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 명사추천



#### 본생경

팔만대장경은 종교요, 철학이요, 교육이요, 과학이요, 문학이요, 인류의 문화 가운데서 이보다 더 큰 고전은 없다. 나는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를 '동화의 바다'로 정의하고 싶다. 자주 주장하는 바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동화를 많이 들려 주신 이야기 할아버지가 바로 부처님이다. 세계 최초의 아동문학가(동화작가)가 부처님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불교동화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처님은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지어 그 깊음으로 부처를 이루셨다. 필부로 인도환생(人道還生)하기도 여러 번이요, 이 세상에 오시려면 전생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으셨을까? 그것은 항하사집에 걸친 공덕이었을 것이다. 경전에는 이러한 전생 이야기가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佛說로 기록되어 있다. 부처님은 雪山의 구법동자로 하나의 계승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몸을 던지는가 하면, 배고픈 호랑이의 주린 입을 가리며 여겨 호랑이 입에 뛰어든다. 이러한 희생공덕은 수

많은 신문학의 효시를 이룬 유망이었다. 그는 1927년 동아일보에 22개 항목으로 연재한 설화본에서 토끼전(별주부전)의 근원이 본생경에서 왔음을 말하고, 본생경이 한국의 민화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였다. 나아가서 세계설화인도기원론을 주장한 이도 유망이었다.

이즘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괴물장 이야기'는 佛說(佛典)인 열노국경 그대로이며, 우리 나라의 민화에 있는 수많은 지혜 이야기(구부러진 구슬구름에 실 계기, 나무도 막의上下 구분, 똑같은 말을 두고 어미와 새끼구별, 재로



신 현 득 (아동문학가)

### 佛說로 엮은 세계최초 동화집 별주부전등 한국민화의 원류

많은 인간의 왕·왕자·대신·수행자로도 이루어졌지만 사자의 왕·코끼리의 왕·사슴의 왕·원숭이의 왕·거북의 왕·앵무새의 왕·메추리의 왕...등 수많은 동물의 왕으로 전생을 사시면서 이루어졌다. 불교동화에 동물이야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팔만대장경에서 이러한 본생담을 바탕으로 한 것이 본 연부의 수많은 경전이다. 그 중에는 아주 동화집으로만 되어 있는 설화경전이 수도 많다. 이것은 불설동화집이다.

그 중에서도 547화의 동화를 엮은 본생경(Jataka)은 BC 4세기에 이루어진 세계최초의 동화집이므로 불교인은 물론 특히 아동문학인은 누구나 읽어야 할 고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Jataka에 대해 최초의 연구를 시작한

새끼 꼬기, 새끼 뱀 황소 구하기...등)는 열노국경 외에 경명왕경 등에서 온 것이다. 본생경 546화 '대수도의 전생 이야기'는 이러한 지혜 이야기의 단권집인데 어쩌면 우리 민화와 이렇게도 같을까 하고 놀라게 된다.

전술한 바 '별주부전(토끼전)'은 본생경 208화·342화 등에서 온 것이다. 원숭이, 악어 사이의 이야기가 토끼와 자라 사이의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 '용고집전'의 원류는 본생경 78화과 450화·535화 등이고 국민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동물의 나이 자랑(두견새전)'도 본생경에서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야기이기로 믿고 있는 삼당탕의 설화들이 불설담을 알게 된다.

우리는 본생경을 설화의 고전으로, 우리 민화의 뿌리를 찾는 입장에서 읽어야 할 것이다.

### 올 서울국제도서전 불서 1천종 출품

불서출판협회(회장 임택)는 오는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95 서울국제도서전'에 1천여종의 불서를 출품, 전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출품은 5개 부스를 확보, 종합전시기로 하고 25개 회일사에 5월 10일까지 출품불서를 선정해 주도록 했다. 한편 대원사는 종합전시와는 별도로 3개의 부스를 출판문화협회에 신청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불출품은 지난해 운주사에서 제작한 <

불교서적 종합목록>을 보완, 제작해 전시기간중 3천부를 무료배포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주최하고 문체부와 전국서점조합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도서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6백여 출판사의 책 3만여종이 전시된다. 외국출판사는 일본의 고단사(講談社), 미국의 스트우드 등 30여개사가 참가한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금강경 강의	무 비	불광출판부
2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3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 타	효 림
4	선재조 108	해 원	가람기획
5	불교경전 성립의 연구	모치즈키 신코	불교시대사
6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 재 응	윤 화
7	불교를 일원 21세기가 보인다	박광서 외	정 토
8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 영 한	전원문화사
9	능엄경	김 재 두	민 족 사
10	연꽃만화	장 지 연	부다가야

구입문의: (02)737-0695

#### 신라선종의 연구

<신라선종의 연구>는 신라시대에 전래된 선사상과 신라후대에 형성된 구산선문 및 기타 선문의 개창과 그 사상적 경향을 연구한 학술서. 신라초기 선 전래에서부터 구산선문을 비롯하여 정충무상의 선사상, 위양종 계통의 오관산(五冠山)의 요순존지(悟順之)의 선사상, 그리고 신라후대 선

#### 구산 선문 개창·禪상상호름 조명

종의 사회경제적 기반 및 지역적 분포를 다루었다. 특히 육조해능의 머리를 지리산 쌍계사 육조정상탑에 모셨다는 이른바 육조정상동래연기(六祖頂相東來緣起)와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에 대해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창안된 허구라는 점을 자료검증과 합리적인

#### 새로운 책

- ▲**불교이야기(지록 지음)**= 주로 산사에서 공부하면서 수련회지도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펼쳐나가는 지록스님의 절상활법 및 살아가는 이야기. 교계 신문과 잡지에 연재한 글들을 묶은 것으로, 불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 딱딱한 교리문답서 형식을 벗어나 대화를 나누듯 편안하게 서술했다. <우리출판사, 5천6백원>
- ▲**나무를 심듯 일력을 심으며(서강 지음)**= 지은이의 방송 원고와 신문 잡지에 실었던 글들을 모은 수상집. 날카롭고 정확한 세태평가를 통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되돌
- ▲**선인의 신책(조복산 지음)**= 수선회와 삼불등에서 행한 신심명 중도가 반야경금강경 등의 강의를 정리한 선입문서. 특히 금강경의 근본사상이 선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폈다. <흥법원, 6천원>

#### 불교아동 교육론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증가와 불교유아교육에 관한 관심 및 학제적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계자료와 문헌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적절한 전문도서도 부족한 현실이었다. <불교아동교육론>은 이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서로, 불교경전에 나타난, 는 아동교육에 관한 교설을

#### 경전에 나타난 유아교육이론 정립

중심으로 불교유아교육의 이론을 정립하고 미래 유아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1~3장은 불교유아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불교의 전통아동관, 불교유아교육의 개념·목적 등을 실었고, 4,5장에는 태아에서 유아기에 이르는 불교교육의 이론들을 마련하고, 실제 교육활동에서의 적용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아교사론 부모교육 교육활동계획 및 평가 등 교육현장의 내용들을 담았다. <불교시대사, 7천원>

#### 마음에 대문자로 새기고 싶은 영원한 노래

▲**사람들 사이에 부처가 있다(김정강 지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석가모니를 수행해 온 지은이의 에세이집. 불교경전 속에 스며있는 삶의 지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출간돼 밀리언셀러가 된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출간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고려원, 6천원>

# 미래래빠의 十萬頌

가르마 천처침의 영역본을 이정섭 풀이해설·양정범 46배판 변형 880면 값 18,000원

## 위대한 스승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인생의 애환이 거울처럼 담긴 노래와 시집으로서  
 빼어난 覺者의 삶이 남긴 위대한 유산으로서  
 다함없는 기쁨과 영감의 원천이 될 경전으로서  
 삶의 뜻대가 되어 줄 헌신과 수행의 지침서로서  
 언제나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고 싶은 고전 중의 고전.

국내 최초의 영역본

티벳 불교의 정수를 맛보게 할 고전 중의 고전

곡절 많은 운명을 떨치고 나아가  
 동굴 속에서 '둘러싼 산세 치러 살아기며  
 깨달음을 구한 지 10년.  
 마침내 궁극의 진리에 몸담게 된 미래래빠!  
 세속과 천상, 지혜와 방편이 둘이 아닌 큰 깨달음을  
 춤과 노래로써 전파한 티벳의 성자 미래래빠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가르침들—  
 그동안 신비에 싸여 있던 티벳 불교의 정수를  
 이제야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티벳에는 두 가지 불부가  
 전해오고 있으니, 죽은 자의 길 길을 편만케 하기 위한  
 <死者의 춤>이 그 하나요, 살아 있는 자의 成佛을 위한  
 <미래래빠의 十萬頌>이 그 하나입니다.

佛經과 佛書 편찬에 투신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우리말 교정·교열에 능한 편집 경력 3년 이상 퇴신 분.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3월 20일까지  
 시공사 편집부로 우송하여 주십시오.